

東大新聞

1998년(월간 2542년) 5월 18일(월요일) 제 1249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택식 /부주간 곽창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근거이언

사람이 서로 헐뜯어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렀다. 말 많음을 헐뜯고 또 말이 적고 침을 헐뜯으며 또 중화(中和)를 헐뜯으니 세상에는 헐뜯지 않음이 없다.
법규경·분노품 335점

여름 계절학기 접수 산사생활등 과목 다양

교무처(처장=서윤길·불교학부) 교무과는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98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98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업은 6학년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된다. 또한 4학년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을 상대평가하고 재수강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동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산사의 생활, 수영 등을 개설하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산사의 생활은 2와 3일간 사찰에서 △수영은 토·일요일 오전에 수영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수강정정은 폐강, 시간 중복일 경우에 한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할 수 있다.

전국 대학 응원대제전에 남산원 어린이들 초청

참사발발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 14일 '제17회 전국 대학 응원대제전'에 남산원(고아원) 어린이 60여명을 초청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이날 공연 3부에서 송석구 총장과 안승호(토니 안)군, 안철원(강타)군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하는 등 행사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수입은 전액 중구관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29·30일 명찰순례 실시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지난 98년 가을 김제 금산사를 시작으로 공주 마곡사, 속리산 법주사, 부안 내소사, 승주 송광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온 명찰순례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연학) 학생과의 주최로 경북 상주의 남장사 일대에서 실시된다.

이번 명찰순례에 참가를 원하는 교수, 직원, 학생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참가비 5천원을 내고 학생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육과 학생과장은 "많은 동국인이 함께 참여해 정신수양과 함께 지친 일상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한국불교의 숙원 불교종합병원 '팡파르' 동국의학 새 지평

16일 일산 부지서 기공식 ... 불자 및 각계인사 동참

본교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및 축하공연이 지난 16일 일산 실험농장 병원부지에서 열렸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등 불교계 인사 및 관계자를 비롯해 약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송총장은 "수도권 불교종합병원은 인간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다루는 인간화,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첨단화, 한·양방의 발달된 의학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정보화를 목표로 지향하는 특성화된 병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동국대학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

므로 종단을 비롯한 2천만 불자들이 동행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복원 이사장은 고사에서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국인들과 불자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송월주 총무원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신동영 교양시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끝으로 불교종합병원 건립 시작을 알리는 시 축이 이어졌다.

한편, 오오파니 대학의 쿠루베 데루오 총장, 붓교대학의 나가이 신코 부총장, 류교대학의 후지



일산 제3캠퍼스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 모습.

가와 코오소 사무국장 등 일본 자매대학 축하사절단이 1억여원의 기금을 전달해왔다.

기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김병조와 홍진경의 사회로 최진희, 김홍국, 국악인 신영희, 장미화,

설운도, 김수근, 홍지우, 태사자, H.O.T 등이 출연,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불교종합병원 건립 설명회 개최

학내주체우러에 따라 ... 서울 11일·경주 13일

불교종합병원 기공식과 관련, 학내주체들이 재정확보의 불투명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표함에 따라 지난 11일 송석구(철학) 총장의 '불교종합병원 건립추진에 관한 설명회'가 1백5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9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송총장의 인사와 임기중(국어국문학부) 기획조정실장의 병원 건립추진 과정 설명,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신학)의 기공식 행사실명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송석구 총장은 "교수회 및 직원노조 등 학내주체들의 불교종합병원에 대한 격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설명하고, 관심과 이해,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회 개최동기를 밝혔다.

송총장은 △재정문제 △시기의 적절성 △경영 타당성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 우려에 대해 각각 △현재 발전기금으로 모아 놓은 3백52억원과 병원수입금, 재단전입금으로 우선 총장후 급원 하반기부터 모금활동 실시, 이후 1년마다 1백억원씩 마련할 것이며 △8월말 이전 착공이라는 것이라며 △조진부 등의 감안시 시기 적절 △1백 80만명정

도의 의료수요인구와 교통의 편리 등으로 경영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임기중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의 병원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충분한 사고와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었으므로 모든 구성원들은 뜻을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기공식행사에 관한 설명과 병원홍보비디오 상영이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설명회였다"고 평가한 후 서울·경주 교수회대의원과 회장단을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질의·응답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설명회로 진행되었고 교수들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주캠퍼스에서는 지난 13일 원호관 소강당에서 1백8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내용의 설명회가 진행됐다.

졸준위 졸업앨범 촬영 오늘부터 학과별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물리4) 이하 졸준위는 오늘(18일)부터 졸업앨범 촬영을 각 과별로 실시한다.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반대운동 전국적 확산 ... 불법검문 단호히 거부해야

최근 한총련 대의원과 대화의 지난 5월 1일 노동자대회가 이어지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불심검문에 대해 '불심검문 거부운동'이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불심검문의 불법성에 대한 타당한 법적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의 정의일 뿐, 집회나 시위 예상시에는 '시설물 보호'나 '수배자 검거'를 근거로 들며, 경찰의 강제적·마구잡이식 검거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서준식)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불심검문 불복종 워크숍'을 개최

한데 이어 15일과 17일에는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30일과 5월 1일에는 종묘 일대에서 거리 선전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영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준비팀은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온 불심검문에 대해 우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과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과 공개토론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회장=정병도·조선해양공4)는 지난 3월 20일의 불심검문에 대해 2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받아 지난달 16일에 관악경찰서장을 형사고발했고 이후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총학생회의 주한수(국문4)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심검문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현재의 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교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또한 지난 서총련 대의원기간의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대동계 기간 중 학생들에게 불심검문 반대카드와 팸플릿을 제작·배포해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해 알려왔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에 대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경찰앞에만 서면 지레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문에 앞서 경찰들이 자신의 소속, 이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혔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들의 검문에 대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땀땀함'과 '자신감'이다. 또 그들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작은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중언론 창출 그 한걸음 걸어간 자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국

48번째 발자국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동대신문 제40기 수습기자 모집안내

-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매부중)
- ▲ 원서접수: 5월 20일(목)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①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 면접일시 및 장소: 서울캠·경주캠 5월 20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광고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들 어디갔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 ... 총노선 등 현안 논의 안돼

학과와 학부 학생회장 이상을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들의 최고의결기구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11일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학생들 사이에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총노선이 수립되지 않고 총학생회 중앙 집행부 인준 △98년 총노선 통과 △토론 안전장점 등의 논의와 △노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대의원들이 사전 준비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의 도중 잠을 자던 대의원들이 회의진행자로부터 지식을 당하는 등 파행적인 모습으로 치달았다.

98학년도 총노선 수립, 구준서(전자공4) 총학생회장의 서총련 인사회의장 선출과 의장후보 등록, 98학년도 학생운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98학년도 총학생회 건설 이후 처음 소집된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에는 전체 대의원 정족수 1백15명 중 8명의 미선출 사과자를 제외한 50명만이 참석했으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36명에 불과했다.

각 대의원들의 참석 상황을 살펴보면, 공과대의 경우 예비군 훈련 관계로 인해 전체 대의원 중 1명만이 참석했으며, 사과대, 법과대, 동아리연합회의 대의원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거나 잠깐 얼굴만 비추고 곧바로 회의를 나가버려 참석한 대의원뿐만 아니라, 참가하기 위해 온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당초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관 임명 △회의 진행세칙 공유 △본회의 의장소개 등의 사전회의와 △총학생회장 인사말 △회의안건 공유 및 회순 통과 △총학생회 중앙 집행부 인준 △98년 총노선 토론 △토론 안전장점 등의 논의와 △노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대의원들이 사전 준비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의 도중 잠을 자던 대의원들이 회의진행자로부터 지식을 당하는 등 파행적인 모습으로 치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범대의 대의원은 “학생들의 최고의결기구인 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학과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도대체 그렇게 많은 파행회장이 이상의 대의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회의의 무산으로 98학년도 총학생회 총노선이 수립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많은 학생들이 하여금 문제 제기와 함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은 “상반기에 학생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리면 어렵지만, 총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총학생회 중앙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대표자 회의가 열렸던 학림관 소강당의 텅빈 모습.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학생회선거에서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는 경성대 한 참가자의 말은 현재 본교의 학생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학생들이 학생회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학생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학생회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제30대 총학생회 공식출범

12일 만해광장에서 ... 대중성 확보 숙제로

제30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가 지난 12일 만해광장에서 해오름마당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12일 오후 4시 만해광장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과대동맹패업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민중의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소개 △학생운동사수 98학생대표자회의의성사를 위한 민족동맹선전활동단 '승리' 해단식 △박영민 동아리연합회장의 '민중성권사수'를 위한 발언 △중앙본예단 공연 △총·부총학생회장 응접 △제30대 총학생회 출범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영민 동아리연합회장은 발언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 사

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내의 대중운동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학생운동의 대중성확보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단결과 혁신으로 거듭나는 한총련·서총련을 만들겠다”며 “그길에 동약의 청년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오름마당이 끝난 후에는 1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만마당이 이어져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었다.

이날 해오름마당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동약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총학생회 출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왔는데 총학생회장이 없

서 조금은 섭섭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관과 문화관 사이 연결다리공사 착공

관리처(처장=김종욱)시설과는 동국관과 학술문화관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연결다리 공사를 지난 9일 시작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다리는 동국관 L동 2층과 학술문화관 3층을 연결하며, 공사는 6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동국관과 문화관 사이를 오갈 때 시간과 거리상의 불편

함이 많았다”며 “이 다리 건설로 인해 이러한 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끼장터' 열린다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는 오는 20일 12시 계산관 앞에서 끼장터를 연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위해 개설된 끼장터는 지난 6월 동계구름의 노래공연으로 처음 시작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20일에는 두 번째 공연으로 현여율이 클래식 기타연주를 한다.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펼쳐지는 이 행사에는 노래, 풍물, 개그 등 장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여학생부처로 하면된다.

이와관련 행사를 준비한 전미영 상담원은 “2학기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서 본교의 상설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98목역대동제 평가

참여로 어우러진 대동한마당

다양한 기획행사 돋보여 ... 뒤틀리 여전히 미숙

“행사가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작년보다 활기차진 것 같아요” “대학문화화랑에서 하나됨을 느껴요” 많은 학생들은 98목역대동제를 이렇게 말한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문화화랑기-모자이크 민들기' 라는 기조 아래 열린 대동제는 녹두사거리에서 중구시민한마당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동제 기간 동안 동약의 곳곳은 학내 문예패 및 안치환, 꽃다지 등의 공연으로 '문화공간대 형성'의 대학문화화랑기, 불상상 상설공연, 동아장터, 소강당문화제등의 여러 기획행사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우 활기찼다. 특히 불상상 상설공연은 정봉호, 김준호·손신심부부 공연, 단과대 및 동아리의 열린 공연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96, 97년도 대동제의 경우, 노수석·류재를 열사 정신계승의 연장선 상으로 투쟁의 성격을 강화해 내비쳤던 반면 이번 대동제는 학생운동의 위기시대에 서 대중성과 신뢰를 확보해 대

다양하게 마련된 대동제행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대동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학부제 시행 이후에 선·후배 그리고 동기간에 형성되지 못했던 연대감을 형성해주는 측면으로서의 역할도 해 한데 어우러지는 점이 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함께 대동제의 서막부터 폐막까지 어우러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동제는 학생들만의 축제로 인식되었으며, 더구나 올해는 대동제 기간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관련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크게 하나된다는 대동제에서 학내주체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축제의 뒷모습은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통일광장에 마련된 주점이 끝나고 다음날인 15일, 버려진 쓰레기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총학생회측에서 주점 주최들에게 치우라는 말을 했음에도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자봉단과 30여명의 용역 청소원들이 대신 청소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쓸쓸하게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소원은 “학생들이 정리할 줄을 모른다. 이러한 대학문화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박영실 기자

회전무대

원천봉쇄

0... 지난 13일 대동제 첫해날, 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주목받은 대학들이 원천봉쇄 되었다.

학내의 축제분위기와는 달리 밖에서는 불심검문이 진행돼 타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초대손님이 학내로 들어오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되돌아 가는 한 학생 말 “축제보러 왔다가 경찰보고 가지요”

막걸리의 힘(?)

0... 대동제 이틀만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 막걸리를 먹고 영동한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고 본 즉, 막걸리를 과하게 마신 학생들이 술기운에 자제력을 잃고 몸싸움을 벌여 결국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다음날, 주점이 끝난 자리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막걸리 먹고 싸움 힘(?)은 있는데 청소할 힘은 없나보죠?”

설렁

0... 지난 12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총학생회 해오름마당이 날씨만큼이나 설렁했었다.

해오름마당이 열리는 것조차 모르는 동아인이 있었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크게 하나되자!”는 뜻으로 동약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해오름마당이 이래서야,

이에 본 회전무대 가상 캐스터 왈 “현재 동약의 날씨는 비·구름입니다. 동약인의 격려와 관심바람이 분다면 맑음이 예상됩니다.”

되새기기

0...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이라던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이 우선순위에 처러졌는데,

귀빈석에 많이 보던 인물이 ‘떠억’ 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람들의 눈을 의심해 해 알고보니, 이 행사의 주최측에서는 5·18을 3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 자리에 5·18 핵심주역인 전두환씨를 특별출연 시켰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본교의 건학 이념인 자비의 정신과 5·18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특별초청?”



장가는 날... 대동제 마지막 날 열린 전통놀이에서 신랑이 식을 올리기 위해 식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남대철 기자

일반휴학 접수

98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8. 6. 17(수) - 19(금) = 3일간
- 신청자격 : 98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1부.
-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2학기)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

99년 졸업앨범 촬영 일정

18일(월)	19일(화)	20일(수)	21(목)	22일(금)
10시				
국어교육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자공학	철학
지리교육	영어영문(야)			사학
				국민윤리
1시				
불교	전산통계(야)	정치외교	물리	행정
인도철학			화학	사회
선학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준/위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목)	29일(금)
10시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영어영문	경제	경영학
식품공학		국어국문	정보관리	
1시	1시30분	1시		
통계	정보관리(야)	독어독문	경제(야)	화학공학
수학	반도체(야)	일어일본	북한학(야)	광고학(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6월1일(월)	2일(화)	3일(수)	5(목)	8일(월)
10시				
전기공학	건축공학	무역학	미술	체육교육
법학	가정교육	회계학	연극영화	역사교육
	수학교육		회계(야)	교육학
2시	1시30분	1시		
응용생물	농업경제	경영(야)	중문(야)	경찰행정
식물자원	산림자원	무역(야)	신방(야)	

초청강연

행사명 : 만해석과교수 조정래선생 초청강연회

제 목 :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

일 시 : 98. 5. 19. 화요일(14:00~16:00)

장 소 : 덕암세미나실(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문과대학장

제17회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물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 행사명 :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 행사내용 : 모교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학생과에 제출하면, 편지와 함께 선물물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5월 22일까지
- 접수처 : 학생과(☎260-3047, 8)

학생처장

관료제 탈피한 국유공영방송매체로 제자리찾자

KBS의 성격

한국방송공사 KBS는 1973년 3월 1일에 국가직영방송체제를 하둡고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이다. 이 회사의 현재 자본금은 3천억원이고 다. 본소유자는 정부이며로 엄격하게 말하면 KBS는 국가소유의 국가기업방송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KBS는 시청료를 주요한 운영재원으로 하는 국영방송체제이다. 형식에서 KBS는 국영기업체라는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정부가 국유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적절할 통제와 규율을 할 수 있고 조준제 성격인 시청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에도 공권력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바가 사이다.

그러나 KBS는 공영방송사업체라는 점에서 다수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와 함께 다수 국민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도 있다. 이 의무와 책임은 국민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하나 오늘날은 그것이 더욱 절박하다.

KBS의 문화적 구성

KBS의 역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주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선점적 정책 필요에 따라 후진국자 중에서

비교적 일찍이 방송이 도입되었지만 수신설비의 구입능력조차 미비해서 민중들은 방송문화에 향유할 수 없었다. 일제의 고단위 식민문화가 잔존해왔던 한국방송공사사는 분단시대에 이르러 민족정신 내부를 다 많은 증요를 재생산하고 소수집권자를 위해 다수피지배자의 눈과 귀를 홀려준 자신의 옛 광성을 세련화하는데만 열중해 왔던 역사라고 규정해도 좋을 듯하다.

1973년에 KBS는 국영방송체제를 탈피했다고 하지만 양적으로 축적되고 질적으로 정교화된 KBS의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송문화가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관료주의의 고착을 편성하거나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맞는 정보와 교양, 오락과 재미를 주어야 했다. 상업방송의 프로그램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KBS의 방송영사들은 시청자의 생활습관과 조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특성의 문화를 사정까지로 바꿔가며 끊임없이 의미를 재생산해왔으나 변신에 변신만을 거듭하며 방송문화계를 뿔뿔이 찢어놓은 방송인들의 보수주의와 기득권주의는 중도개혁적 전염되어 오늘날의 방송인력을 개혁의 도마 위

에 올려 놓게 되었다.

개혁의 중심은 인사개혁

한국방송의 개혁과 그것의 선행변수로서의 KBS개혁은 국유공영방송매체로서 KBS가 지금 당장 제1의 시분봉을 찾는 일이다. 오늘 방송이 우리 시민들에게 들려준 시급한 해결과제는 방송문화의 국민적 교류공간을 넓히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보와 방송의 시대정신을 경신하여 국민성 호기의 수평적 정보교류를 양과 질의 각 방면에서 크게 확장하는 일일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 인사의 개혁 즉, 스태프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한 대폭적인 교체는 필요하다. 경력방송인의 교류부담지,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신진방송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수직사 대열에서 송신자 대열로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KBS를 지누른 관료주의의 관념 때문에 짧은 기간의 KBS생활을 마감해 보았던 일사에게 KBS의 개혁은 어떤 관철차도 더더 소중할 당위이다. KBS의 주변에 깔려 있는 관료제 사회의 기술적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 그리고 억압적 통제제도는 방송언론인으로 하여금 진실에 대한 충성심과 문화정착을 위한 독창성을 육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동안 KBS는 신원조회 등을 통해 관료제 사회의 성원으로는 규격화되지 않은 인재채용을 거부해 왔다. KBS에는 체제지향성이 높고 조직응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시사논단



유 일 상
한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개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한적인 인사용인방식에 의해 뽑혔고 이들은 과거에 정 부공무원 신분이었다던 국영방송시절의 방송인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KBS 인사는 대폭으로 풀어야 하고 방송인이 갖출 문필능력, 소명 의식, 대의명분, 창조역량을 갖추고도 KBS의 접근을 차단했던 숨은 인재들을 찾아 KBS의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KBS는 독립적인 방송기구가 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조인 이외에 KBS는 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방송문화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성될 수 있다. KBS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구 KBS의 개혁을 위한 자기관리능력으로 자기점성술의 선악점사와 미추 등의 방송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KBS는 일반 상업방송사업자와 달리 그 독립성을 최고로 인정받는 오로지 대다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장 주인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먼 미래는 우리의 예측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미래 그 자체의 미치수속에 남겨두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사설

정부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실망이다.

한총련 대대회가 또 연기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기로 했던 대대회는 지난 13일, 대검공판인 '한총련 대의원들' 검거지시령 때 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하고, 통상의 이메일을 통한 대대회 성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참으로 사글픈 현실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집회의 자유권을 강탈당한 채 정부의 압력으로 음지로 음지로 숨어줄 수 밖에 없었던 70년대 학생운동권으로 회귀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김대중 정부초기, 실로 반세기만에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개혁과 변혁을 일구어 나가는 것은 '개혁'의 실종과 함께 사라지고, 오히려 과거 정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은 관재언론의 압력과 공권력의 횡포 속에서, 학문의 성역이라 일컫는 대학까지 지역총련 출몰식이 열린다는 이유로 침탈당했다는 얘기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 시기 이따금씩 벌어지고 있음을 추지해야 한다. 또한 잦은 불심검문은 학생증을 자신의 학교로 등교할 수 있게 해주는 출입증명서로 그 위상을 전락시켜 버린다.

지난 5월1일 노동자대회에 학생들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폭력시위의 주모자며, 주범이라고 매도되었다. 또한 노학연대를 불허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과거 정권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한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을 '개방'적으로 매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허락하는 관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덧붙여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학생들을 무조건 검거하기 보다는 한총련이 스스로 개혁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과 혁신은 역시 그 조직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고, 대의원이라는 학교 학생회의 대표가 서로 모여 질적합을 논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도록 해주는 것 적실할 것이다.

대동의 참뜻을 되새기며

5월의 교정은 생동감이 넘친다. 학교 곳곳에서 치러지는 행사도 다양하고, 대학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축제로 인해 분주해 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주캠퍼스 현재 임석 대동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서울캠퍼스 경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립'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대학축제의 상업화를 철저히 배제한 차원에서 대동제의 일정이 진행됐다. 이에 반해, 오늘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경주캠퍼스 대동제는 '서른이웃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전하는 젊음의 내일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행사를 1주일 내내 열기로 기획됐다. 이러한 모습이 IMF시대 대학이 앞장서서 소비행락적인 대학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로써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난 95년 김윤호 학우 돕기란 명목으로 학내 바자회를 유치해 상업문화가 대학에 침투하여 눈앞을 일으킨 바 있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우이웃 돕기란 명목으로 상업문화의 대학내 유입을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이번 대동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다양하고 알찬 대학문화의 발전과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국을 시민과 함께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타대학의 경우를 살펴봐도 규모나 일정면에서 대동제 행사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축제라 지속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대인인지 묻고 싶다.

대동제는 말그대로 학내 구성원들의 젊음의 내일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행사를 1주일 내내 열기로 기획됐다. 이러한 모습이 IMF시대 대학이 앞장서서 소비행락적인 대학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로써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난 95년 김윤호 학우 돕기란 명목으로 학내 바자회를 유치해 상업문화가 대학에 침투하여 눈앞을 일으킨 바 있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우이웃 돕기란 명목으로 상업문화의 대학내 유입을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방황하는 취업재수생 비애

취업프로그램 확보등 대학 배려 필요

기존 일터에 있던 사람들마저 길거리로 내몰리는 시대에 대학문을 나서는 사회신입생들의 실재리 엄격히 연구한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취업재수생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취업고시(?)를 준비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취업재수생은 "요즘 대입재수생보다 더 괴로운 것이 취업재수생이다. 집에 있어도 가족들 보기 민망하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다"며 "대학에서 최소한의 입시취업교육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현재 전국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취업률은 50.0%(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포함)로 작년 61.8%에 비해 11.8%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경우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7.8%(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포함)로 작년의 81.3%에 비해 13.5%가 낮아졌다. 매년 졸업자수가 비슷하다고 보면 올해에는 취업재수생들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늘어난 꼴이다. 이렇듯 심각한 취업재수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내에서의 취업대책마련은 시급하다. 가령, 대졸구직자를 위한 직업정보망 확충 및 비전공분야 취업자를 위한 취업준비교육 확대, 취업정보실 확충과 등이 준비할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본고의 경우 컴퓨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강좌가 전부이다. 취업과 한 관계자는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몇 달의 컴퓨터 단기강좌가 취업의 지름길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보다 근본적인 취업정보의 확산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을 시사했다.

타대학의 경우 지난 4월말까지 42개 대학(전년도 포함) 2백 15개 강좌가 마련되었다. 또한 25개 대학이 5, 6월 중으로 컴퓨터 실습을 예정했다. 경희대는 7개의 컴퓨터 단발기와 자유롭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학생들 취업 상담·지도를



인한 전문인력 구성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정보실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특별한 강좌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재수생들이 일반 강좌를 청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 '발발'이조차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무소속'에 따른 불안감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다"는게 대부분의 취업재수생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대학은 일단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취업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하지만 일정정도 대학내에서 취업재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겠다.

지금 이시각에도 취업스트레스에 쌓여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을 취업재수생들, 그들의 비애에 대한 대학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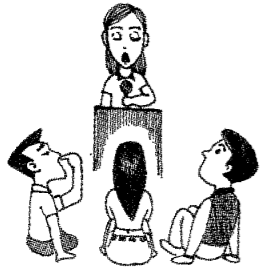
19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p>대학원 (후기) ☎ 260-3093-4</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1. 석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p> <p>2. 석사학위과정 (이간)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102-3</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109-10</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106-7</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097-8</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102-3</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606-7</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602-3</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석사학위과정 (이간) ☎ 260-3602-3</p> <p>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3.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4.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5.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p>6. 석사학위과정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2. 모집학과: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p>
--	--	---	--	--	--	--	--	--

본고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숭상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전념함으로써 합니다.



동약로



대의나 소의나

지난 12일 오후 만해광장, 제30대 총학생회 해오름마당이 치러지고 있다. 3백여명 정도의 저조한 참가율, 한껏 쌀쌀해진 날씨...

“비가 안 온다는 의미는 하늘이 항상 민족 통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의 인사말로 해오름마당이 시작된다.

이날,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와 쌀쌀한 날씨로 ‘쌀쌀한’ 만해광장을 더욱더 쌀쌀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전 서훈련 인사의장이기도 한 본교 구준서 총학생회장이 같은 날 치러진 ‘서훈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학생운동의 대중성 확보·신뢰 회복! 압축한 역사를 개척하는 동약청년의 눈빛으로 자주·민중·통일의 새세기를 준비하자! 그대, 동약이여!’ 무대 뒷편에 걸린 대형 플래카드가 이날 행사장의 전체 분위기를 말하는 듯했다.

기획-통일 시리즈

김대중정부는 취임직후 조국통일을 9대과제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통일의식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IMF시대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2. 식량난을 통해본 북한의 실상
3.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진단
4. 대학생·민간단체의 통일운동 움직임

머리말

지난해를 기해 남한은 두 가지 커다란 역사적 계기를 만났다. 곧,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김대중정권이 출범하였고, 또 IMF체제를 맞았다.

새로운 동북아질서구도와 통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라는 미국의 대표적 이데올로기가 몇해전에 펴낸 ‘문명충돌론’이라는 책과 논문은 21세기에는 국제적 갈등이 국민국가간의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에서 오는 갈등보다는 7개 문명권으로 구성된 문명간의 갈등이나 전쟁 등이 주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장기적 동북아질서 구도 전망을 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통일딜레마에 빠진다. 통일의 대외적 조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에 의존해

IMF 위기가 기회다 남북 신 데탕트 최우선 과제

남과 북은 최소한 부분통일이라도 이루어, 그것이 연합단체이거나 또는 연방단체이든간에, 지구촌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내적 조건은 남과 북의 경제적 역량의 너무나 큰 격차와 남한의 통일준비 미성숙으로 인하여 통일을 빨리 진행하였을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내부식민지화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이다.

IMF와 남북관계의 방향

IMF체제는 통일준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정권이 묵시적으로 추진하고, 또 상당히 일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대북흡수통일 정책이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새정권이 등장한지 3개월 정도이지만 소리없이 통일정책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경분리를 추진, 창구단일화 완화, 4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병행, 6자회담의 제안 등 ‘준비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듯하다.

북쪽의 최악의 식량난과 남쪽의 IMF시련이라는 양쪽의 위기는 남북의 뿌리확인과 운영공통체 요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만 전체 예산의 1/4에 가까운 엄청난 군사비라는 부담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이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간의 긴장조정의 근본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97년 기준으로 남한의 군사비는 무려 1백70억달러이다. 북의 경우 생존에 허덕이면서도 군사비 출혈을 강요당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새정권이 등장한지 3개월 정도이지만 소리없이 통일정책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인위적 흡수통일 배제,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경분리를 추진, 창구단일화 완화, 4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병행, 6자회담의 제안 등 ‘준비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듯하다.

요한 갈통 교수 초청 강연회 "2+3 협력안이 통일 최선의 대안책"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2+3 협력안 발표-
덕석학 Johan Galton 교수 초청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원칙을 견지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며 또 상호주의원칙이라는 면에서도 잘못을 범한 이중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상호주의는 둘이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가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기규칙이 된다.

Big Idea란... 50%의 광나는 생각과 50%의 그 제품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제2회 LG 019 PCS TV광고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큰 상금과 매력적인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 안기부 개혁 방향 시사논단

국내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반드시 차단해야

수사권 폐지·국내외 정보기능분리... 선진정보기관으로 가는 지름길

새정부 들어 안기부의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부른다는 '정보는 국력이다'를 바꾸고 국내정치 개입부서를 통합하며 관련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고 한다. 안기부는 정치공작과 사찰 등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인권유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수사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안기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아 새정부의 안기부개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밝혀진 북통공작사건은 김영삼정부 초기 시도되었던 개혁작업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정치공작을 자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안기부에 대한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안기부의 개혁은 순수정보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비밀리에

움직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을 행사해온 안기부원들이 형사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었다. 안기부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제를 가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안기부 자체의 안기부원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안기부의 정보수집기능도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정보는 물론이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해외경제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순위를 국내 정보수집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로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1차장(해외·대북)과 2차장(국내)체제로 나누어 정보수집기능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의 기능분리만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거와 다를없이 국내외정보수

려졌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안기부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기부원들의 직권남용과 정치개입행위에 대해 안기부원들이 형사처벌받은 예가 거의 없었다. 안기부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제를 가하려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안기부 자체의 안기부원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안기부의 정보수집기능도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정보는 물론이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해외경제정보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순위를 국내 정보수집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로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1차장(해외·대북)과 2차장(국내)체제로 나누어 정보수집기능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의 기능분리만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거와 다를없이 국내외정보수



장주엽 변호사

집기능이 통합되어 결국 국내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적으로 기능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이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권의 이례한 정치권의 역할관계에 따라 다시 안기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정부 초기에 시도되었던 안기부의 개혁이 정권 정보수집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로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1차장(해외·대북)과 2차장(국내)체제로 나누어 정보수집기능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의 기능분리만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거와 다를없이 국내외정보수

집기능이 통합되어 결국 국내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적으로 기능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이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권의 이례한 정치권의 역할관계에 따라 다시 안기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정부 초기에 시도되었던 안기부의 개혁이 정권 정보수집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로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1차장(해외·대북)과 2차장(국내)체제로 나누어 정보수집기능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의 기능분리만으로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거와 다를없이 국내외정보수

사설

새 시대를 여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개교기념일을 맞았다. 이번 92주년 개교기념일은 매년 느끼는 바와는 분명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영광과 좌절, 희한 그리고 가슴 벅찬 감격... 우리 동국의 지난 한세기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2년 남지 남은 21세기는 분명 이전 세기와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우리 동국에게 예고해 한다. 지금의 국내의 정세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제는 어느 대학이 망하고 흥하느냐 하는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 어느 나라, 어느 전체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잠시 빛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심부름 판단을 불허한다.

이러한 세계발전의 혼돈은 금세기 초 이 대학을 세웠던 우리 선각자들을 생각해 한다. 그들은 쓰러져가던 나라와 절망에 빠져있던 세계인류를

보듬어 안으려는 웅혼한 기상으로 이 학교를 세웠다. 우리는 새롭게 착각한다는 신념으로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기공식을 앞둔 불교종합병원도, 제3의 캠퍼스도, 교육개혁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들이 하나도 우리도 하나가 아닌, 남들이 안하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남들이 앞장서 한다는 선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선구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겸허하지만 당당한 수행승의 자세로써 우리 스스로 그 고독을 감내하자.

가야할 방향이 결정되면, 힘을 하나로 모아 더 이상 주저하지도, 당황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수천, 수만 마리의 꼬끼리 무리처럼 도도하게 달려가라. 새로운 세기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말이다.

학자추 분리 재고하자

경주권의 학생회칙이 대폭적으로 수정됐다. 지난 6일 총대의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17개 조항의 개정과 1개 조항의 폐지 등 지난 85년에 회칙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정본안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회칙개정의 의미는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나는 지난 감사와 선거에서 학생회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적지않은 소모전과 마찰을 빚었던 시행착오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학생회칙 개정여부가 현실화됨으로써 불법리한 조항의 개정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이 새롭게 제정된 학원자주회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의 자기기부 승격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총학 신학기구인 학자추의 승격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금까지 매년 총학선거를 치르면서 이른바 계열이나 사상이 다른 총학이 들어설 경우 이전에 추진되었던 학자추의 승격안이 보강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계열이 다른 총학이 당선된 경우 순조롭게 인수권이 되어야 할 관련자들과 문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

태가 빈번했다. 그런 경우는 단대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추를 총학에서 분리하여 경과와 절차에 상관없이 사업의 지속성을 꾀한다는 취지는 백번 납득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회칙에서의 학자추 승격이란 형식상의 명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사업의 성격에 격하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학자추가 총학과 분리된 면 사업의 연계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간의 원활한 공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식대과 관련된 협의과정 속에서 학생복지위원회와 중운위 간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해 문제해결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총학차원에서 힘을 모아 추진해도 어려운 학자추 사업을 자기기부 사업으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학생회는 이 시점에서 소탈대실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노동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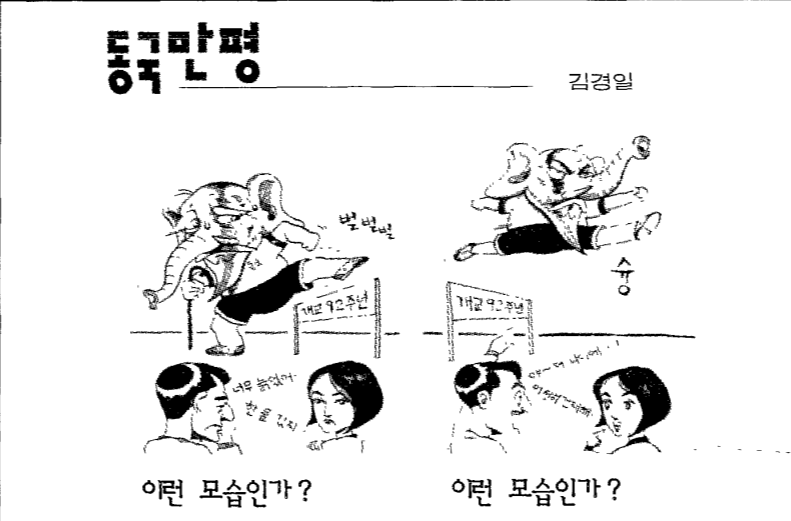
검·경의 강경 진압방식, 충돌 격화될 듯

노동절은 매년 5월1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연대의 날이다. 또한 그 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절을 제정할지 벌써 1백여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노동절은 평화로운 기념일로 지켜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지켜져 왔다.

지난 1일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갑용)은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절의 의미가 얼룩졌다. 실업과 해고문제의 심각성때문인지 이번 집회는 그 의미가 축제의 장이라기 보다는 생존권을 확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약 3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1부 본대의 폐막식 언과 함께 종료에서 명동성당까지 거행된 집회를 준비하던 참가자들이 대오를 정비하는 순간, 전경이 최후탄을 난사하자 종로 한복판에서 두 시간 가량 대기하며 투쟁전이 벌어졌다. 한편, 충무로로 대오가 이동해 대한극장 앞에서도 노동자·학생과

경찰이 대치하며 물대포와 최후탄을 발사했다. 17명(노동자6명, 학생11명)이 연행되고 23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이번 집회에서 경찰은 1백26개 중대 1만5천여명의 병력을 동원, 종로일대를 일선 분쇄해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최후탄을 난사하고 돌을 던지는 등 과잉진압이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평화적인 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행사 도중에도 4층-5층으로 경찰병력을 배치시키고 페퍼포그 차량 7대를 동원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 또한, 언론은 노동절 투쟁이 마치 한층러 주도의 폭력투쟁인 것처럼 보도해 사실을 왜곡했다. 물론 예비실업자 인 대학생이 생존권과 직결된 노동자, 실업자 등과 함께 참가했지만 "평화적인 노동자 집회였는데 노혁연대를 통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불법폭력 시위 국제선언도'에 약 영향 우려'라는 언론의 보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의선언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실로 뻔하다. 비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직접



이것 평화적인 집회와 불법 폭력 시위를 명백하게 분리해 한층러 등 불법 단체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폭력시위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법범으로 체포하고 해산 위주에서 감기 위주의 진압방식으로 정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제2의 충돌시대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인택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s 1998 academic year recruitment. It features the headline "19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and lists various graduate programs such as Law, Edu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ocial Work, along with their respective admission dates and locations.

자아인식 램프

학교 안에서

'그리고 ... 그림' 소품전

순수 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의 제 11회 소품전. 재학생들이 1개 이상 작품을 출품해 전시하는데 회화종·민속공예품·설치미술 등 총 38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98학년 새내기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이번 소품전의 특징.

오늘(18일)부터 22일까지.
학생회관 2층 영화관에서.

'소낙비' 영화제

경주캠 영화동아리 '소낙비'가 대동제를 맞이하여 일본영화제를 상영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이번 영화제는 오늘(18일) 오후 1시-실라연, 3시-하나비, 5시-Shall we dance?, 내일(19일) 오후 8시-죽음의 날이 상영된다.

18일 원호관 소강당, 19일 녹야원에서.

학교 밖에서

제 6회 젊은 연극제

전국 연극영화와 학생들의 연극제전. 연극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창조적인 대학문화창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계속됐다. 본교를 비롯 단국대, 청주대 등 총 9개 대학이 참가하며 올해는 브레히트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작품을 테마로 공연한다.

본교 출품작 '서풍소리 오페라'는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풍자극으로 한국적으로 재구성해 무대에 올린다. 지도교수인 영섭, 연출 박병수이며 이재욱 등 16명의 재학생이 참여한다.

공연일정

16. 17일	(안국대) 미라비드
18. 19일	(경주대) 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다.
19일	(성남대) 비탈
20일	(성남대) 포카르스의 백록원
21일	(가이대) 포카르스의 백록원
22일	(경성대) 주인공의 99회 하인 미터
23일	(연암대) 두리
24. 25일	(동국대) 서풍소리 오페라
26. 27일	(중앙대) 미안고사리의 변명과 불락

오후 4시, 7시(단, 27일은 오후4시만)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3천원, 문의 260-9753

세속도시에서의 사랑

우리극연구소 '젊은 작가 발굴 시리즈' 2탄. '고도를 기다리다'와 '자기와 자기' 등 두편의 단막극으로 이뤄졌다. 20대의 젊은 작가 송중현씨의 희곡 데뷔작을 무대화한 이번 공연은 자기 정체성을 잃고 황황거리는 세대의 모습을 개성있는 시작으로 그렸다.

'고도를 기다리다'는 안산성 연출로 현대인들의 과도한 상상력이 빚은 허구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다. '자기와 자기'는 조태준 연출로 젊은 부부의 일상을 양식화된 구조를 통해 조명하는 세태극이다.

다음달 7일까지. 오후 4시만, 7시(단, 월요일 공백 있음). 연극실협실 해회동 일번지에서. 문의 763-1288

영상매체비평

영화편

'메이드 인 홍콩'

이제는 없는 나라, 홍콩에서 보내온 유서

"사는건 언제나 이렇게 힘든가요? 어릴 때만 그런가요?" 마틸다는 한숨을 내쉬며 레옹에게 물었다. 많은 어른들은 (그 자신이 '행복한 성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아픔이란 말과 고향을 뚫고 나와 하늘로 날개짓하는 나비'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즐겨 사용하면, 어린 사람들에게 인내와 극기를 충고하고 강요해왔다. 그러나 그 고통이 순간의 통과이레로 스쳐가 버릴 것 같지 않고, 부모와 친구를 빼앗고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아갈까 걱정하는 데해갈 때 어떤 수사와 의연함이 그 잔인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과연 어떤 종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홍콩'이 '홍콩 처녀'가 되던 1997년, 세계 영화계를 깜짝 놀래켰던 프루트 켈 감독의 6천만달러(유덕화는 켈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필름을 주며, 이 영화의 제작을 도왔다) 초저예산 영화 '메이드 인 홍콩'은 앞서 운을 댄 바대로 훌륭한 '성

장영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영화의 제목이 '홍콩의 97년'을 사실적이고 또 충격적인 역사적 비전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홍콩의 불안한 현실과 정체성을 '증경심'에서 '레인코트'에 섰던 사람들을 쓴 글씨로, '레인코트'의 경우 서서처럼 암시적이고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다. 닭장같은 아파트에서, 말과 대포, 그리고 사냥의 것 마저 불가능한 현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버리며, 양부가 어린 딸을 강간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시치미를 떼는, 또 맞고 때리고 도망치고 죽고 죽이는 것이 일상화된 '97년의 홍콩'은 이미 실리적이고 실존적인 불안이 넘쳐난 절망 상태다. 영화의 마지막 나뭇가지에 걸린 연을 포착한 화면 위로 마우쩌동의 '홍콩의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가져라'라는 연설이 깔릴 때, 이 이미지와 사운드의 역설적인 결합은 켈감독의 홍콩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들은 죽고 없다.

'메이드 인 홍콩'은 대개의 영화들처럼 살아남은 자의 목소리로 영화가 전개되지 않고, 죽은 소년 차오의 목소리가 1인칭 내레이션으로 영화를 끌고간다. 죽은 자의 목소리로 전해들기에 영화가 주는 분노와 슬픔은 곁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여기에 또 유서라는 필름은 편지가 더해지는 데 최초에는 투신자살한 보스의 것이었지만 거기에 병사한 썬의 유서, 타살된 중추우의 (중추우: 유서에 태어났다 해서 붙여진 이름, 그러나 그의 삶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유서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은 유서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이유는 각기 다른 어린 사람들의 죽음에 개인적인 비참함이나 무능력, 운명에 기인한 '비트', '증오'의 열거리에 나란히 적혀 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영화 제목으로 남을 것이다.

한승희
대학원 영화학과 석사과정

참다운 나를 찾아 나설 때 달하나 천강에

싱그러운 오월의 캠퍼스에서 스승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방송사도 선생님이 어린 인기인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만들고 있다. 모두가 스승의 날에 꾸며진 행사인 듯하다. 막상 당사자인 교육의 가슴은 무겁고 행사를 기피하는 분위기이다. 얼마전 서울의 한 교사가 촌지사건으로 면직되고 대학총장이 인사부장으로 구속되는 충격에서 못 벗어난 듯하다.

여민급의 거액을 받고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정치인도 흔한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그런 판국에 촌지로 인한 직책의 박탈이란 아무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인 듯 하다는 여론도 높다. 모두는 백민급의 물집보다 가르친 자식에 기대를 거는 전통의식이 밀바라에

잘린 탓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대학사회는 교육의 장소임과 동시에 학문연구를 병행한다. 학문의 이치는 틀이 아니므로 곧고 굽은 것을 가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중추적 위치에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총장마저 부정축재를 일삼아 왔으니 세상은 희망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개인적 불명예만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계 전체에 막대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어느 집이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 놓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는 대학사회가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구속된 총장은 행정적 권위만을 내세

웠을 뿐 학문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서 일이 발단된 것 같다. 대학 풍토를 모르는 사람이 의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도 경탄할 따름이다. 상반도합(常反道合)의 말처럼 상식에 반하는 것이 도와 합치되는 길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반도합은 우주의 이치를 깨우친 고차원의 정신세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돈오는 선불교의 지장법인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계 전체에 막대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어느 집이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 놓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는 대학사회가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구속된 총장은 행정적 권위만을 내세

웠을 뿐 학문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서 일이 발단된 것 같다. 대학 풍토를 모르는 사람이 의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도 경탄할 따름이다. 상반도합(常反道合)의 말처럼 상식에 반하는 것이 도와 합치되는 길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반도합은 우주의 이치를 깨우친 고차원의 정신세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돈오는 선불교의 지장법인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계 전체에 막대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어느 집이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 놓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는 대학사회가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구속된 총장은 행정적 권위만을 내세



오홍석
사법대
지리교육과 교수

통일문제운동, 전망있다

근거지 확보 통해 민족주의 전파해야

이번호부터 민족의 미래를 여는 통일 문화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본 시리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문화분과에서 공동기획한 것으로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해
2. 민족주의운동의 통일문화의 연인
3. 대학문화를 통일문화로 바꾸기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어보았다. "영종도가 자유무역지대가 되면 북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북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의지는 많다. 그러나 능력이 안된다." 북한의 경제적 인프라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적 인프라는 다르다. 북한에서의 예술사업은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부문 중의 하나이다. 김정일이 예술부문에서 당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김일성 생존시에 혁명사업에서 가장 자신을 애덕인 것이 예술가였다는 유언과 관련 있다고 한다. 혁명의 미래를 걸고 정성을 기울인 만큼 북의 예술은 부분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것들도 있다. 영종도에 공장을 세우진 못하지만 극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극장을 당장 못 세운다면 공연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예교류는 경제 교류에 비해 부작용보다는 효용성이 많은 부분이다. 나진선봉에 노점이 생기고 빠징교가 생겼다. 돈이 가는 곳에 마흔과 도박, 폭력이 간다. 최용해 사모청위원장을 비롯 당장부들이 난민이나 서방의 돈에 매수되었다는 혐의로 숙청되었다. 그러나 문예교류는 남북간의 사상의식을 상호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도 선호한다. 실제로 범민족대회의 합의로 처음으로 문화 통환 하나문이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예교류의 전성시대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통일문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사동의 화랑에는 북한미술품이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다. 그러나 북한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위치가 관을 치고 북과의 관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장사꾼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예술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류는 현재의 기대와 설레이어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오랜동안 교류만 하다가 통일이 관성화된 주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통일문제에는 궁극적으로 민족운동이 전국적 차원에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본성적 임무가 있다. 때문에 통일문제에는 분단의 상처를 극복할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예이다. 통일문제에는 '민족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민족주의를 전파시키는데 창작과 교류의 방향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실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진 기획이 필요하다.

통일문제에의 전락은 근거지를 만드는 일이다. 남북예술인들이 항상 만나서 공동창작하고 공연, 전시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드는 일이다. 물론 이 지대는 연합의 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인 연방을 실현하는 연합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민족생활문화의 동인이 살아 있어야 한다. 강화는 단군을, 한강은 고대 전까지 국내외가 만나는 문화중심지였다. 둘째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동북아의 중심거점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과거의 청산뿐 아니라 미래의 설계기 때문이다. 넷째는 전략을 추진할 문화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지대는 평화와 문화의 주제로 하는 지대여야 한다. 평화는 북쪽 뿐 아니라 중국과 동아시아를 포용하는 주제이며, 문화는 정치와 경제의 긴장감을 최소화하고 민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남북과 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가 필요하다. 10월에 민족의 시조 단군정신을 계승하는 민족문화 대동제가 이 계획의 전술적 목표이다. 단군주의는 남북의 체제를 넘어서서 민족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평화문화교류를 위한 민족문화 대동제를 이 지역을 중심으로 10월에 남북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문화교류시대와 10월 민족문화 대동제를 통해 남북통일문제운동의 전망을 풀어 가야 할 것이다.

이시우
문화예술청년공동체 편집위원



89년, 임수경씨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대표로 참가했다.

책소개

방북작가나 기자가 저술한 책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자는 취지에서 방북관련 책을 소개합니다.

정가 4천3백원, 들배개

더디기도 사랑방까지

"통일은 언제나 가능한 것일까.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멀고 먼 평양 땅에 갈 길없는 나그네처럼 외로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 조광동씨는 한국일보 시가고지사 편집국장을 맡던 중 광주항쟁 보도 관계로 해직돼 89년에는 한겨레신문 시가고지사를 창설하여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91년 4월 북한 방문한 후 책을 썼다.

북한주민과의 대화나 방문기 형식의 글들은 북한주민의 생활 곳곳에 베어 들어 임수경씨 방북당시 행적을 고스란히 지면화하고 있다. '노끈 그대로 진심을 심자'는 원칙으로 북한을 묘사했다는 안동일기라는 저자의 말에서 이같은 기자의 원칙이 통일의 대장전에서 바른 자세였는지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정가 3천 4백원, 지리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작가 황석영은 1989년 3월 20일 본 단고착화 이후 남북작가로는 최초로 금단의 땅, 북녘 땅을 밟아, 이후 만 4년 동안 일본, 독일, 미국에서 사실상 방북작가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 황석영을 기다리며"로 시작하는 책.

한장 중심의 철저한 문학운동가로 불리는 황석영씨는 1부 '사람이 살고 있었네', 2부 '통일을 위해 문학의 길을 걸다'로 이어나 '조국이었네'에서 3부 '방북담을 담고, 3부 '분단시대의 통일작가 황석영의 단편선'에서는 그의 작품을 담았다.

정가 7천 8백원, 시와시사회사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

1990년 발간된 임수경씨의 육종 방북백서에서 임수경 후임사업회에서 엮었다.

지금의 자유의 몸이 된 임수경씨는 저술 당시 89년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대표로 참가해 90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밝힌 방북활동보고와 방북현장 지상증거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국은 하나

제2회 목격록 락 페스티벌

"락 즐기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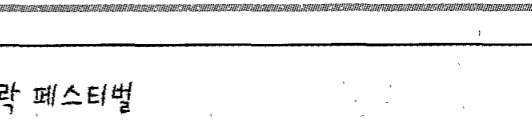
사진촬영을 위해 본교 락커(Rocker)들에게 '모여주십시요' 요청했지만 약속 시간에 내타난 사람은 오직 1명이었다. 동약의 모든 길은 불상 앞으로 통한다고 했단가요? 겨우겨우 몇 사람을 더 불러 사진촬영을 끝냈는데, '사진은 찍을 수 없다' '기타는 내놓을 수 없다' '머리를 풀 수 없다' '뺏어진 청바지가 포인트' 등등 갖가지 요구를 해 기차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했다.

이렇게 자기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데 뭉쳐 '목격록 락 페스티벌'을 개최할 마음을 먹었을까.

'제2회 목격록 락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오후 3시, 40분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동제 기간 중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목격록 락 페스티벌'이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동약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인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큰 무대에서의 공연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꿈이지요." 1회 행사에서 기획과 연출을 맡고, 올해는 기획안을 담당할 '강종원 밴드'의 강종원(인도철학과 석사과정 1학기)은, 그는 기획자의 의무를 이렇게 해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올해 참여한 팀은 지난 해보다 배가 늘어난 8팀이다. 총 연출은 '피어리스 락'의 박동규(영문과 3군)가 담당했고, '비트', '면도날', '마사이', '강종원 밴드', '피어리스 락', '볼게구



를' 등이 출연하며 각각 연주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이다. 이들 중 '볼게구 락'만이 본교 정식 동아리이며 '마사이'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프로'이다. 링크에서 트래쉬 메탈, 블루스 락, 파퓰러 락까지 각기 추구하는 음악 성향도 다르다.

오직 '즐거기' 위해서 똘똘한 그들은 개개의 밴드가 갖는 정치성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전체 락 페스티벌은 오로지 '순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집단이 성숙해야 개인이 성숙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목격록 락 페스티벌'이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강종원씨. '열린 조 직'을 위해 내년부터 후배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는 동약인들에게 "모두 와서 즐기세요"라며 마지막 말을 맺는다.

김미경 기자

광주민주화 운동,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연극·소설·가요·무용 네 장르의 대표적 작품들을 통해 각각의 5·18해석 관점과 메시지를 살펴보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작가 박일문(38)씨를 만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한 예술작품들의 비판점과 지향점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연극 : 천년의 수인(囚人)

버려진 역사의 용서와 화해 구해

“소”라고 한 사람은 무서워 하면서 쓴 사람한테만 뒤라고 해!” 무대에 오른 노(老) 테러리스트 안두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친다. 1980년 5월,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청년을 위해... 아니, 어쩌면 그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의침일지도 모른다. 그는 불행한 역사를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한국연극계의 기인(奇人) 오태석씨가 극작 겸 연출을 맡고, 내노라하는 연기자 이호재씨와 전부송씨가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천년의 수인(囚人)'이 지난 8일부터 동숭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동숭아트센터 한국현대사 재조명 시리즈'라는 타이틀과 절망적 이 연극은 백범 김구 살해법 '안두희',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군 병사, 비전향 장기복역수 등을 내세워 굴곡진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면을 다루고 있다.
첫 장면, 안두희의 피사소식을 보도하는

뉴스캐스터의 목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난 안 죽는다. 난 불사조야”라고 외치며 “무혈혁명이 올바라다”고 백범을 시해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안두희의 모습에 관객들은 혼란스러워진다. 수십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백범 시해 이후 수십년을 갇은 협박과 구타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안두희, 제 민족을 금남로에 쓰러뜨려야 했고 결국 ‘역사 바로 세우기’의 희생양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진압군 병사(총격으로 정신이상자가 됐다), 빨치산 활동으로 1952년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해야 되는 비전향 장기수, ‘천년의 수인’은 이들을 역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연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잊지말자’라고 부르짖는다. 이는 유가족들이 ‘쓴 사람’ 진압군 병사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데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시오”라고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비감하기까지 하다. 이런 그들의 뜻을 아는 자 모르는지 한없이 웃기만 하는 진압군 병사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시오...”

연극의 종반부에서 진압군 병사를 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안두희와 비전향장기수, 단원서를 작성하고 자살하려는 그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이렇듯 ‘천년의 수인’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역사를 ‘용서와 화해’라는 덕목으로 너그럽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미경 기자

“끝 내 아무도 달려와주지 않았던 그 봄날 열흘, 저 잊어진 도시를 위하여 이 기록을 바친다”
장편소설 ‘봄날’의 첫머리에 저자는 이렇게 적어놓았다.

봄날은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의 한정된 시간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기간을 다루고 있는 전5권의 장편소설이다.

현재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 임철우씨는 “한 도시 전역에 걸쳐서 많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끊임없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상황 안에는 그야말로 서로 다른 수백수천 가지의 사건과 무대도 서로 다른 체험과 반응과 해석이 공존

소설 : 임철우의 ‘봄날’

“역사의 장을 덮을 몇몇함이 있는가”

할 수 밖에 없다. 그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5권이라는 장편을 쓸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내려 했다고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가는 소설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에게 묻곤한다.
“구원의 손길은 끝내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으며, 그 도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폭도의 누발이 썩어내려 갔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달팽이처럼 거꾸러져 보인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은 마무리된 것인가. 진정 지금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영원히 역사의 장으로 철저히도 무방할 것인가. 아니 무엇보다 아직도 감기습을 서성이고 있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최소한 미안했다는 한마디 대신, ‘화해’나 ‘용서’나 ‘역사의 장에 맡기자’ 같은 말들을 험사리 강요해도 좋을 만큼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들은 몇몇함이 있는가” 최진 기자

가요 : 정태춘의 ‘5·18’

“땅에 묻기전에 가슴에 묻어라”

군 화발 소리, 탱크 소리, 헬기 소리. 그리고 귀에 익은 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흐른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정태춘의 새 노래 ‘5·18’은 이렇게 시작된다.

소리를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땅 울음 언덕배기에 노어울음으로 말하리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같은 주검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신비탈에도 너의 집 마라/ 거리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건너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저 꽃들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깃발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아~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지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이/ 나는 옥상위에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이/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그 다음 마치 울음을 삼킨 듯한 목소리로 소년들과 누이들의 무덤 앞에 훈장을 묻기 전까지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라고 노래한다.
이는 5·18을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태춘씨는 이 곡의 제목을 처음에 ‘잊지 않기 위하여’라고 붙였다고 한다.
“그랬다가 광주를 담은 음악이 없어서 아예 ‘5·18’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라고 말하는 그는 이 노래에서 ‘사실성의 힘’을 보여준다. ‘나는 깃발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등이 그것이다. 음악평론가 관학영씨는 “이 노래에는 ‘적’ 개념이 분명치 않



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지도 회수되지 않았네’라는 부분은 잊기는 하지만 노래를 듣다 보면 오히려 ‘적’은 5.18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음~”라는 문송현의 ‘오월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는 이 노래는 ‘5.18을 잊지말자’라고 차라리 절규하는 듯하다.
김미경 기자

“그들의 결혼”은 원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이자 현대무용단 사포의 예술감독이기도한 김화숙씨가 안무를 맡은 ‘춤으로 풀어낸 광주’의 한 완결편이다. 김교수는 “이번 작품은 망명동 모티프에 놓여진 신부사진 한 장이 기본 모티프를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내용은 ‘몰아친 신부’,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들은 지상에 그렇게 있었다’로 구성되는데 20여명의 무용수들이 신부와 신랑이 되어 70분간 흐느끼고 쓰러지고 원을 돌고 뛰 어오르며 춤으로 5·18을 얘기한다.
대본을 쓴 한해리 교수는 작품의도에서 3부작의 시작동기를 “누군가에 의해 언급되고 발견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라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증인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95년에 발표한 ‘그해 5월’은 첫 작품으로 역사적 시각에서 재관화된 작품이고 97년 발표한 ‘편의 땅’은 같은 소재를 전체주의의 시각으로

무용 : 그들의 결혼

피·가해자 구도 벗는 해결책 제시

이미지화한 두 번째 작품이며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이번 작품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들의 결혼”의 모티프가 된 사진은 5·18 당시 남편을 기다리던 신혼의 신부가 개업군의 흉에 맞아 생을 마감한 사건을 담고 있다. 제작품의 연계성과 작품의 주된 모티프는 대구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이상일 교수의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인공 남자와 신부의 짧은 사랑, 가해자와 피해자들,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지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다는 이 작품은 결국 결혼이 상징하는 싸움과 화해를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서 구하고 있다. 역사의 한 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벗어나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하다는 메시지를 역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전해주는 듯 하다. 최진 기자

상업성에 물든 5·18, 진지한 역사·문화연구로 바로잡아야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저자 박일문(38)씨.

반성인데 패배주의가 있었다는 비평가들의 해석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5·18에 대한 상품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외에도 90년대 초 공지영과 최영미 이후 신현림등의 작가들이 주목받았으며 꽃잎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들에 대한 독자들의 주목만큼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모래시계가 재방송에서도 골목길만한 시청률을 보였다.
-근본적으로 모래시계를 80년 광주라고 생각하는 기자의 생각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모래시계등 이외의 ‘고등어’나 ‘서른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들에 대해 나는 그것이 광주나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모래시계에서 헤린(고현정 역)은 호헌철폐를 부르짖는다. 이는 1984년 생긴데 1979년 박정희 유신 시대에서 헤린은 호헌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것이 광주이고 역사일 수 있는가? 나머지 작품들도 소위 운동권이라는 색깔만 빌려왔을 뿐 진실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한 자본과 결합한 드라마나 영화·책에서 5.18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5.18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
-소설에는 요즘 나온 임철우의 봄날이 있을 것이고 시집은 아주 많이 있다. 단 꾸는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한 상업화된 많은 매체들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주를 접하고 그것들을 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매체들은 광주도 역사도 아니다. 광주는 단순히 사람이 죽고 그 속에서 운동권이 생기고 군부정권이 등장하는 등의 배경요소가 아니다.
-매체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광주는 그 당시 과거와 미래를 가르 는 분기점이 됐다. 5.18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우방국이라는 생각을 버려 경제, 정치, 군사적인 중추국과 식민국의 구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로써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능력이 생겼으며 그간 없었던 맑스주의적 정치와 경제의 분석도 도입됐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광주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이상 80년 광주같은 일들은 일어나 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개인은 자유와 개인주의에 물 들어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 부활되는 듯하는 복고주의의 또 한 개인과 자유를 인정하는 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광주의 폭압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지난 아픔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진상규명 요구가 남아있는가 하면 이전 대화함으로 가아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근본적으로 광주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너무 팽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스스로가 광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모두가 피해자인 반면 우리모두가 가해자라는 것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진상은

▲다테교코, 라라 크로프트, 아담. 이들은 지난 95년을 기점으로 하나 둘씩 우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이버 스타들이다.
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세계 최초의 컴퓨터게임 ‘뿔 레이다’의 캐릭터로 등장하여 사이버 스타로 떠오른 라라 크로프트, 한국 최초의 사이버 스타 아담. 그렇지만 현재, 이들의 대중지지도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출현이 시작된 시기와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는 6월 4일에는 다음 3년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지방선거는 실시 3년째에 접어든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직 이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사전선거 운동에 따른 금권정치로 얼룩져 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아들이 혹은, 대중의 취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사이버 스타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아직까진

생소한 용어의 주인공들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진 않을까.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영위할 수 있는 권력(?)의 근원이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데 있다.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의 생명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사실은 현재 사이버 스타들의 현실에서 더 잘 나타난다. 호프코사에 의해 처음부터 사이버 스타를 목적으로 기획된 다테 교코는 대중들로부터 자신과의 동일시가 불가능한 가상의 존재로 인식돼 그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라라 크로프트는 초기에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컴퓨터통신

게임메니아로부터 철저한 검증 받은 게임의 주인공으로서 그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이제는 그 활동영역이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담은 어떤가. 그러나 아직 아담의 성공여부를 거론하기엔 이른 듯하다.
▲다시 선거를 돌아보자. 이제 우리는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백년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참된 미래를 예견하는 사이버 스타이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왔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의 지지, 대중의 관심을 통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보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아담의 처지와 달리, 대중의 선택이 값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선택의 분수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해경 편집부장

메아리 선택

